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강제 철거의 역사
상계동 올림픽(1988년)

70년대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농촌인구는 도시로 유입되었고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이농민들이 도시 전역에 무단 정착, 대규모 빈민가를 만들었다.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궁핍을 피해 온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가 반겨줄 리 없었다. 그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달동네' 라고 불리는 무허가촌에서 삶을 영위하는 도시빈민들은 '가난한 행복' 조차 누릴 수 없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된 '재개발' 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으로 인해 그들은 철거민이 되어 철거폭력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의 투쟁의 불씨는 6,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만 해도 이농민수가 거의 4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모두 서울에 집중되었다.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과 무차별 과잉중복투자 등 개발제일주의로 일관했던 군사정권은 도심지 곳곳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화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철거민운동의 역사

불황에 휘청대던 중동건설경기는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복구하려는 건설재벌의 착취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산업은 도시서민과 빈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광주 대단지' (철거민 이주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서울 도심지 외곽의 황무지 광주 대단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켰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영화 방식',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싼값에 공급' 한다며 무주택 빈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던 '목동 신시가지 조성 사업' 이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목동 주민들은 정부의 서울 시내 판자촌 정리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를 당해 그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목동 공영 개발은 서울시가 직접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목동 개발지역 내 수십 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 다음 아파트를 직접 짓고 다시 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형태의 개발이었다. 광주 대단지 폭동 이후로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철거에 대응해 왔던 70년대와 달리 목동 공영개발 저지 투쟁은 최초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생존권쟁취투쟁이었다.

상계동 강제철거의 역사는 화려한 올림픽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을 비롯하여 200여 곳을 강제 철거했다. 정부는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계동 지역에 대대적인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상계동 173번지 철거촌 사람들은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돌아와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었던 보금자리를, 가난에 주눅 들지 않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밝게 키울 수 있었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에 될 처지에 놓였다. 가진 자들의 눈에는 그냥 없어져도 무방할,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철거민에게 상계동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지켜야만 할, 싸워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올림픽과 철거민

2004년 상계동은 한 채의 판잣집을 찾아 볼 수 없고

새로 지은 아파트와 십여 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가 빽빽이 서 있다. 상계동에서 더 이상은 상계동 철거민들의 삶과 저항은 찾아 볼 수 없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비슷비슷한 외관의 아파트 주변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다.

상계동 철거민의 흔적을 상계동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길지 않은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상계동 철거민들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국민생

상계동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저항이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존권은 법 이전의 문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인다. 방값이 싸고 일터가 있고 정든 이웃이 있는 상계동의 평화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철거깡패와 전투경찰과 구청직원들이 함부로 철거민들의 짐을 트럭에 실어가 버린다. 포크레인이 함부로 집을 부수고 철거민들은 저항하다 다치거나 끌려가거나 죽는다. 철거민들은 어딘가로 없어져야할 구차한 물건 같은 존재이고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고 빨갱이같이 흉측한 존재인 것이다.

집을 잃은 철거민들은 1987년 4월 13일 명동성당으로 옮겨가서 두 개의 대형 천막에서 생활하게 된다. 300여 일 동안의 명동 생활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남겼다. 그것은 상계동과는 달리 명동에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철거민들은 여자와 남자로 나눠 두 개의 천막에서 생활하며 6월 항쟁을 맞는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천막생활은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빼앗아 간다. 말쑥한 차림에 해사한 얼굴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천막을 들추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철거민들을 들여다 본다. 불편한 잠자리와 거친 식사보다 철거민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자신들을 함부로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경기도 부천에 850평의 땅을 마련해서 다시 옮겨갈 때 철거민 40세대가 떨어져 나간다. 1988년 1월 8일 야산에 둘러싸인 새 삶터에 가건물을 짓는 와중에 다시 부천시청 직원들이 들이닥친다. 무허가 건물은 계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지으라며 부수어 버린다. 구청에서는 짐을 보관해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철거민들의 살림살이를 빼돌리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폭행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동원 감독이 제작한 영화 〈상계동 올림픽〉(88년)에서 철거민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도시빈민의 아픈 삶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상계동 철거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이 영화는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말해준다. 이 영화는 한국 다큐멘터리로서는 처음으로 야마가타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 상계동 길거리 주점에서 소주잔을 기울인 '그 때 그 사람들' (왼쪽부터 김영준, 김진홍, 안은정 씨)

▶ 총각이었음에도 '민기 아빠'로 통했던 김동원 감독(오른쪽)과 안은정 씨. 이들은 오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상계동을 떠난 상계동 사람들

장마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먹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상계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상계동과 깊은 인연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네 사람을 만났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면서 철거민들 사이에서 '민기 아빠'로 불렸던 김동원 감독과 당시 천주교도시빈민회 총무로 활동했던 김영준 경기도 시흥 정왕종합복지관 관장과 철거민대책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진홍 씨와 안은정 씨를 만났다.

김동원 감독이 가난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상계동 철거민들을 만나면서부터 라고 한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폭력의 실체를 그 곳에서 똑똑히 보게 된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포크레인을 앞세워 집을 부수는 철거 깡패들, 포크레인 밑으로 몸을 던져 철거를 막으려는 주민들,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재개발은 올림픽과 도시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과 정부의 땅투기, 집투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재판 때 증거용으로 제출할 비디오를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계동에 들어갔던 김동원은 3년 동안이나 그 곳에 머물며 촬영을 했다.

"내가 상계동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까닭은 철거민들의 삶 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로 험한 곳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인가? 상계역 앞 육교의 노점상

나는 철거민들의 저항의 역사를 내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루지 못 한 공동체의 꿈

김진홍 씨는 당시 상계동 철거민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철거투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처절한 싸움이 바로 철거투쟁인 것입니다. 철거민들은 생존이 걸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강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권력을 쥔 독재정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했던 상계동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의 밥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가는 남자들과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여자들과 노인과 어린 아이까지, 철거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철거민 투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은정 씨는 데모는 일부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살림만 하던 주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돌멩이를 던지고 운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언제 갑자기 철거 깡패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누구랄 것도 없이 밥이며 술을 내오고 하나 둘 모여 앉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긴 밤을 함께 보냈다. 삶이 위협받는 순간 그들은 전보다 더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철거민들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김동원 감독을 3년 동안이나 그들 곁에 머물게 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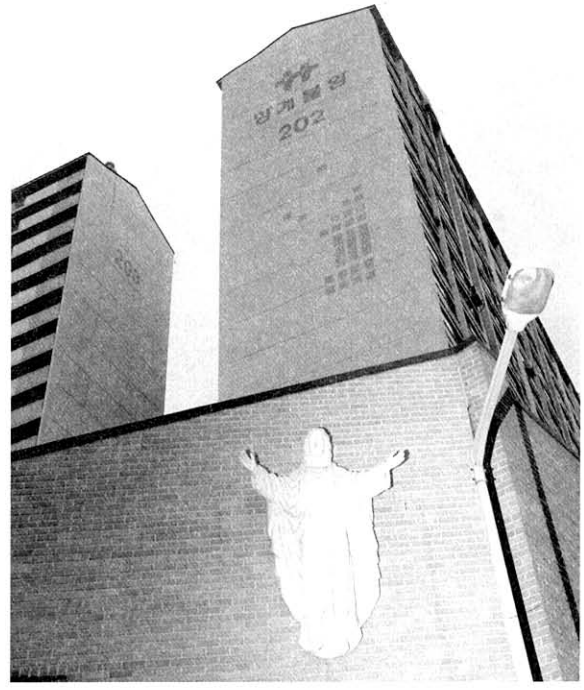
명동성당에서의 생활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힘든 상황이었지만 상계동 사람들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과 연대해서 자신들의 싸움을 지속해 나갔다. 투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계동 철거민 공동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교회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은 철거민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함과 다툼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몰려든 지원금과 물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싸움은 끝났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들었다. 교회가 철거민들에게 부천에 이주할 땅을 구입해준 뒤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김진홍 씨는 상계동 철거민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 한 까닭을 지도자의 부재였다고 평가한다. 종교계 외에 대학생 등 각계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투쟁의 주체인 철거민이 주체가 되어 싸움을 이끌지 못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상계동 철거민들 사이에 '영미 엄마'로 더 잘 알려진 안은정 씨는 상계동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 못 하고 끝내 뿔뿔이 흩어진 사실이 안타깝다고 한다.

김영준 관장은 철거민이 된 도시빈민들의 싸움은 단지 경제투쟁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작고한 제정구 전 의원과 정일우 신부가 1976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지역의 재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라는 자활공동체와 같은 형태의 주택협동조합을 추진 중이다. 주거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도시빈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빈민들이 빈곤이 아닌 가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희망적일 수 있다.

빈 땅을 점유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이들은 서울에만 29개 지역에 4,2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1960년대에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금호동, 봉천동, 상계동 등에 살다가 80년대 재개발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강제철거는 철거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 반대편에는 몸 누일 한 평의 땅이 없어 쫓겨나는 도시빈민들이 있다.



상계동 철거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구심점이었던 천주교 상계동 교회 뒤에 고층 아파트가 솟았다.

집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다. 생활이 아닌 부의 축적을 위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철거민이 된 도시빈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글 / 서 성 란

1967년 익산 출생.
1996년 중편소설 「할머니의 평화」로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과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발표.

사진 / 노 순 택

다큐멘터리 사진가(http://nohst.simspace.com)